

Date: 29 Tammuz 5786 (July 14, 2026)

Torah Portion: Devarim

Topic: 불법과 식어가는 사랑, 제 1 부

예호슈아(Yehoshua)께서 선포하십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 12). 이 말씀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지만, 동시에 깊은 자비를 담고 있습니다. 예호슈아께서는 단순히 세상의 상태를 묘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음의 상태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변에 어둠이 깊어질 때, 우리 안의 무언가가 지치기 시작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실망은 냉소주의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배신은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의는 쓰라린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서서히 마음을 닫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호슈아께서 이 경고를 주신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불법”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노미아(anomia)는 법이 없이 살거나 법에 대항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호슈아의 세계관 안에서, 이는 자연스럽게 토라(Torah)로부터의 이탈을 뜻합니다. 즉, 단순히 개별 계명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야훼께서 세우신 삶의 질서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르게 이해된 토라는 사랑의 원수가 아닙니다. 토라는 사랑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며, 사랑에 형태와 훈련, 방향성, 그리고 신실함을 부여합니다. 언약적 신실함이 없다면 사랑은 그저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할 수 있지만, 언약은 사랑이 어려워질 때도 계속 사랑하도록, 그리고 충성을 지키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신실함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토라와 사랑의 이 밀접한 관계는 우리의 기도 속에 깊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쉘마(Shema)는 야훼의 주권을 사랑의 계명과 직접 연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엘로힘(Elohim)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엘로힘 야훼를 사랑하라” (신명기 6: 4-5). 이 사랑은 그저 사적인 감정으로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야훼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져야 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며, 집에서 말해져야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다룹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 장 12 절의 경고에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랑은 다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차가워진 마음에 대한 해결책이 늘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감정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해결책이 단순히 ‘돌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친절한 행동으로, 그리고 한때 우리의 마음을 깨어 있게 했던 경건의 훈련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토라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잊어버리기에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영혼은 방황하기에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이 지치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의 근원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쉘마를 둘러싼 기도들은 이 점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바 랍바(Ahavah Rabbah, “풍성한 사랑으로”)** 기도는 야훼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토라를 배우고 성취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하바트 올람(Ahavat Olam, “영원한 사랑으로”)** 역시 야훼의 변함없는 사랑을 토라 및 계명과 연결합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음을 먼저 상기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질지라도 야훼께서는 우리를 향해 차가워지지 않으셨음을 기억할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분의 언약적 사랑은 변함없이 남아 있습니다.

아미다(Amidah) 기도는 영적 차가움에 대한 또 다른 응답을 제시합니다. **하쉬베누(Hashivenu)** 기도에서 예배자는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당신의 토라로 돌이키소서. 우리 왕이시여, 우리를 당신의 예배(섬김)로 가까이 이끄소서. 그리고 완전한 회개로 우리를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 언어는 참으로 다정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쳤다는 것은 알지만 스스로 어떻게 깨워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야훼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회개를 뜻하는 테슈바(Teshuvah)는 근본적으로 돌이킴, 즉 마음을 다시 참된 중심을 향해 돌리는 것입니다.

인류가 야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웃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엘로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존엄성을 잊어버리기 쉬워집니다. 낯선 이는 위협이 되고, 이웃은 경쟁자가 되며, 형제조차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역시 참입니다. 마음이 야훼께로 돌아갈 때, 타인을 다시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력을 회복시킵니다. 회개는 쓰라림으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받은 자비는 비로소 베푸는 자비가 됩니다.

shalom(Shalom).